

[2단계] 받침의 소리 - 홀받침, 쌍받침

1. 다음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어 보자.

박[박]	닭다[닭따]	키읔[키읓]	→ ㄱ
산[산]	문[문]		→ ㄴ
곧[곧]	웃[웃]	있다[입따]	→ ㄷ
빚다[빚따]	쫓다[쫓따]	술[술]	
물[물]	불다[불따]		→ ㄹ
감[감]	마음[마음]		→ ㅁ
집[집]	앞[앞]	덮다[덮따]	→ ㅂ
강[강]	콩[콩]		→ ㅇ

2. 다음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어 보자.

각을[가글] 살리다	산에[사네] 오르다	밥을 얻으니[어드니]
발을[발글] 다치다	몸으로[모모로] 말해요	밥이[바비] 맛있다
손을 씻어라[씨서라]	옛다, 상이다[상이다]	개가 짖어요[지저요]
빛을[비출] 밝히다	부엌으로[부어크로] 가자	앞은[아픈] 강이다
아이를 낳았다[나알따]	배 곱아[까까] 먹자	여기 있으면[이쓰면] 돼

3. 다음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어 보자.

부엌어멈[부어거멈]	맛있다[바된따]
웃웃[우돈]	겉옷[거돈]
옆얼굴[여벌굴]	

배준익

2024 삼고을중학교 2학년 국어

[3단계] 받침의 소리 - 겹받침

1. 다음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어 보자.

넋[넉]	묵[묵]	삿[삿]		→ ㄱ X
앓다[안따]	엎다[언따]			→ ㄷ X
여덟[여덜]	짹다[짹따]	넋다[넉따]	밟다[밟따]	→ ㄴ X
넋죽하다[넉쭈카다]	넋둥글다[넉똥글다]			
외곶[외골]				→ ㄷ X
훑다[훑따]	핥다[할따]			→ ㄷ X
값[갑]	없다[업따]			→ ㅂ X

닭[닥]	흙[흑]	철[칙]	엎다[억따]	→ ㄱ X
말다[막따]	말지[막찌]	말고[말꼬]		→ ㄱ X
압[암]	점다[점따]	점고[점꼬]		→ ㄱ X
윙다[윙따]	윙조리다[윙쪼리다]			→ ㄱ X

앓다[안타]	맏다[만타]	맏고[만꼬]	맏소[만쏘]	→ ㄱ X
알다[알타]				→ ㄱ X

2. 다음 말의 올바른 발음을 적어 보자.

넋이[넉씨] 나가다	여기 앓으렴[안조렴]
짹은[짹븐] 다리의 역습	외곶으로[외골쓰로] 생각하다
시험 범위를 훑어[훑터] 보다	제값을[제갑쓸] 받다
닭이[달기] 먼저다	말은[말근] 물
점음이[절므미] 좋구나	시조를 읊으며[읊프며]
나는 울지 않아[아나]	
코로나를 앓은[아른] 적이 있니?	

[4단계]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우리말 발음 규칙

1. 음절의 끝소리 규칙

ㄱ	ㄴ	ㄷ	ㄹ	ㄴ	ㅁ	ㅂ	ㅅ	ㅇ	ㅅ	ㅈ	ㅊ	ㅋ	ㆁ	ㅇ
ㄱ	ㄴ	ㄷ	ㄹ	ㄴ	ㅁ	ㅂ	ㅅ	ㅇ	ㅅ	ㅈ	ㅊ	ㅋ	ㆁ	ㅇ

받침소리: 가 나 다 라 마 바

※ 관련: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제8항

2. 연음 법칙

- (1)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할 경우에는,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

+

결합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, 접미사와 결합할 경우에는, 뒤 옛것만을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.

※ 관련: 표준 발음법 제4장 받침의 발음 제13, 14항

- (2) 부엌에서[부어에서] vs. 부엌어멈[부어대멈]

부엌에서

부엌어멈